

다자녀 가족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질적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Multi-child Familie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 수 문 숙 재*

강 사 양 정 선**

박 사 이 성 은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Moon, Sook-Jae

Lecturer : Yang, Jung-Sun

Doctoral Course : Lee, Sung-Eun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having many children, their motive of childbirth, patterns of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their expectations of their children. For this purpose, thirteen mothers of multi-child families have been interviewed in depth.

Key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ignificance of children in many-child families varied. The fundamental features were: symbol of strong ties between God and humans, proud existence displayable to others about their level of happiness, and a means of defining their identity. Second, the typical motives of the majority of interviewees to have many children were "unplanned" but "natural accommodation and adaptation." Third, striking aspects, in terms of many-child familie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were to consider many-child families to be a community in itself as a great environment of learning and to have to deal with issues of limits and impartiality when allocating resources of a limited income and parents' time. Fourth, expectations of parents for their children were "normal growth" and mediocrity, and they cited intangible human assets as the greatest gift to their children.

This study will hopefully offer a new analytical perspective to the growing concerns of low birth rates and excessive zeal of parents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thereby lay the groundwork of methodological approaches for resolving such social problems.

▲주요어(Key Words) : 다자녀 가족(multi-child family), 저출산 현상(the low fertility), 인적자본투자(investment in human capital), 질적 연구(a qualitative study)

* 주 저 자 : 문숙재 (E-mail : sjmoon@ewha.ac.kr)

** 교신저자 : 양정선 (E-mail : jsyang1120@hanafos.com)

I. 서 론

2005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10% 표본을 조사한 결과, 출생자녀수가 3명인 경우는 16%, 4명은 8%, 5명 이상인 경우는 10%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이 34%였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가 6%, 1명이 16%, 2명이 44%로 나타나 다자녀 가족과의 큰 비중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 자녀수를 베이비붐 이후 세대 혹은 80년대 이후의 출산 기혼여성으로 국한한다면 떨어진 출산율에 비례하여 그 격차는 현저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자녀수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갈수록 증가해 가는 교육비 부담에 따라 이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산업화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정부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한 이후, 출산력은 급속하게 저하되어 1974년에는 3.6명으로 반감되었고, 1983년에는 출산력의 대체수준¹⁾인 2.1명에 도달하게 되었다. 2007년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4번째로 낮은 1.19명으로 전 세계 평균 출산율 2.56명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병행된 사회적 현상이었으며, 다자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도 크게 변화하여 왔다. 김정숙(2006)의 연구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아이를 3명 낳아 키우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자신들은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기저에는, “남아선호 사상으로 아들을 출산하기 위해, 돈이 정말 많아서, 종교적인 이유, 단순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등의 이유로 3명까지 낳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며,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많이 낳아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는냐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내재해 있었다. 자녀를 3명 이상 낳는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외적인 경우로 생각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새로마지 플랜 2010²⁾과 같은 장기 종합 대책

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던 중 2005년 1.08명으로 세계 최저이던 합계출산율이 조금씩 최저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우호적 분위기 확산,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지자체의 종합적인 출산지원 시책, 종교계·노동계·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형성, 쌍춘년 효과³⁾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용 부담, 자기개발 우선, 출산과 육아를 양립시킬 수 없는 보육시설의 부족, 결혼연령의 상승 등(강복화, 2003; 김수연, 2003; 한유미·곽혜경, 2004; 최숙희, 2006)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대부분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 즉 인적자본 투자와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2001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7년도 사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반면 공교육비는 4.4%로 평균에 못 미쳤다. 이러한 경쟁적인 교육현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한 자녀에게 모든 인적자본을 투자하여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며 전체 가구소비규모에서 자녀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적자본이란 기계설비 등의 물적 자본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적자본은 인간체내에 내재하되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경험, 지식, 건강 등을 통칭한다(Schultz, 1961; Mincer & Polachek, 1974; Becker, 1993). 교육을 통한 지식의 증가는 인적자본 증가를 의미하며, 인적자본은 개인적으로나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소득 보장을 위한 투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자본의 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교육열과 맞물려 대학입학을 위한 사교육의 투자로 대변되고 있으며, 이는 가계의 소득소비 지출구조에서 교육비의 지출과 다 현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계가 미래의 소득감소를 대비하여 은퇴 전에 노후를 준비하여야 하나 우리나라

1) 합계출산율이 2.1 수준일 때를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이라 하며, 이는 평균 한 여자가 2.1명의 자녀(이중 0.1명은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함을 전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함. 이 수준이 계속하여 일정기간(40~75년) 유지되면 인구의 양적 증가가 정지하게 된다고 함

2) '새로마지'의 의미는 '새로움'과 '마지막'이 합성된 신조어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부터 노후의 마지막 생애까지 희망차고 행복하게"라는 국가의 인구복지정책을 목표로 담고 있으며, 2007년 8월 14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새로마지플랜2010"을 심의 확정하였음.

3) 쌍춘년(雙春年)은 음력 기준으로 한 해에 입춘이 두 번 있는 해를 말한다. 지난해의 경우 음력은 2006년 1월 29일부터 2007년 2월 17일까지. 7월 윤달이 끼어 1년이 385일이 되면서 입춘(양력 기준 2월 4일)이 두 번 들었다. 이런 해에 결혼하면 길하다는 속설이 있다.

에서는 자녀의 교육투자 때문에 노후준비가 미약한 상태에 머무르고 그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원 모두의 복지를 위한 지출 계획과 할당이 가족생활주기를 거치며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자녀의 교육기에 집중되는 교육비의 지출은 가족생활 전주기를 거쳐서도 만회하기 어려운 수지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은퇴 후를 대비한 저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가계에 이렇게 큰 부담을 주는 인적자본 투자는 결국 자녀의 수를 제한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저출산의 원인, 자녀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 등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양적연구에 근거를 두고 그 관련 변수를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다수의 유사점들을 원인으로 걸러냈으며, 후속으로 진행되는 많은 연구들이 이를 또 다시 검증하기 위해 유사한 절차를 거쳐 모집단의 일반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다자녀를 낳고 키우는 가족들이 주변에서 관찰되는 맥락에 중심을 두고, 과연 다자녀를 선택하게 된 가족들의 원인과 그 삶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적 궁금증(intellectual puzzle)의 해결은 연구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정에 근거하여 사회적 설명을 추구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선택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지식, 견해, 이해, 해석, 경험 그리고 상호작용 등과 같이 탐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실체의 유의미한 속성들에 관한 자료를 창출해내는 적절한 방법은 이들과 접촉하여 대화하고 이야기를 들으며, 이들의 설명과 견해에 접근하는 것이다(Mason, J.저, 김두섭 역, 1996). 많은 수의 사람들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표면화되는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보다는 해당주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완숙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다자녀 가족에 관한 연구로는 외동이와 다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송호경, 2004)와 한자녀 및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인식을 탐색(김정숙, 2006)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분석을 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현재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정혜선, 2006)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족은 종교와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아직 다자녀 가족에 관한 연구가 기초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갈수록 소수집단이 되어가는 다자녀 가족이 그들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을 갖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같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지적인 궁금증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다자녀 가족에게 있어서 인적자본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다자녀 가족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의미이고 다자녀를 갖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다자녀 가족의 인적자본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다자녀 가족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미래는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와 과도한 교육열에 대한 새로운 해석적 시각을 제공할 것이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적 사고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다자녀 가족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부분은 저출산 억제에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방법 중 하나인 문화기술적 연구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로서의 관찰자라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구성원들이 지니는 행동, 신념, 이해, 태도, 가치 등을 기술하고자 하였다(신경림 외, 2004). 다자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현장 속에서 심층면담을 통해 더욱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며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는 비지시적,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와 같이 광범위하고 막연한 질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 진행되었다. 연구 목적과 탐색하기를 원하는 특별한 과제에 초점을 맞추되 연구자에 의한 면담 방향과 통제는 최소한으로 하였고 연구 참여자에게 많은 부분 의존하여 참여자의 생각에 따랐다.

면접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전형적 사례 선택법(Goetz & LeCompte, 1984 ; 조용환 1999에서 재인용)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면접이 가능한 조건 아래서 연구대상자가 이를 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다자녀 가족으로서 연구의 동기와 목적을 이해하는 대상자로 한정하였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핵가족을 이루고 있으며, 막내 자녀가 취학 전이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기혼여성 중에서 취업경험과 계층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막내 자녀 연령을 취학 전으로 한정된 것은 이 시기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요구가 큰 시기이므로, 다자녀로 인한 영향력을 여러 방면에서 역동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고 본격적으로 인적자본 투자가 시작되어 교육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계를 다자녀 가족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2.4명이고,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이름	연령	학력	결혼연령	자녀 성별(연령, 학교)	취업경험	남편의 직업	종교
사례1	40	고졸	25	아들(16세/중3), 딸(14세/중1), 아들(9세/초1)	전업주부(생산직)	인테리어	기독교
사례2	32	석사	25	딸(7세), 딸(4세), 아들(1)	초등학교 교사	회사원	기독교
사례3	43	고졸	27	아들(17세/고1), 딸(14세/중1), 딸(7세)	인테리어업	인테리어업	기독교
사례4	34	대졸	26	아들(9/초1), 딸(7세), 딸(5세), 딸(1세)	전업주부 (교회 서무 간사)	골프샵 운영	기독교
사례5	43	고졸	29	딸(14세/중2), 딸(12세/초5), 아들(9세/초2), 아들(3세)	시간제 아르바이트	자영업	기독교
사례6	34	고졸	24	딸, 아들, 아들(5세/세쌍둥이)	카드 상담원	요리사	무교
사례7	35	고졸	25	아들(11세/초3), 딸(10세/초2), 아들(4세)	전업주부 (학습지 판매)	제빵회사원	무교
사례8	33	고졸	23	딸(8세/초1), 아들(5세), 딸(3세)	전업주부	홈쇼핑 납품업	무교
사례9	37	고졸	30	딸(8세/초2), 딸(6세), 아들(1세)	전업주부(미용실)	카드사	무교
사례10	39	대졸	24	딸(17세/고1), 아들(15세/중2), 아들(8세/초1)	전업주부	개인사업(철강업)	기독교
사례11	43	박사	26	딸(17세/고1), 딸(10세/초3), 아들(8세/초1)	대학교수	회사원	천주교
사례12	36	대졸	24	딸(12세/초5), 딸(9세/초2), 아들(3살)	전업주부 (초등학교 보조교사)	회사원	기독교
사례13	32	전문대	25	딸(6세), 딸(4세), 아들(2세)	학습지 판매	유통업	무교

가임기혼여성의 평균출생아수는 1.7명, 추가계획자녀수는 0.2명으로 기대자녀수는 1.9명이라는 통계청(2006)의 자료와, 자신이 실제로 갖고자 기대하는 자녀수는 2.0명이고,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자녀수는 2.2명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한국의 주요 아동지표(2006)를 바탕으로 하였다. 평균 출산자녀수나 기대 자녀수 그리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를 초월하는 자녀수는 3명부터이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다자녀 가족을 자녀수가 3명인 가족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 바 있다(김정숙, 2006). 최종적으로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13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그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4세였으며, 평균 혼인 연령은 25세이고, 주로 3명씩 출산하였으며 모두 성별이 골고루 섞여 있었고 4명의 자녀를 둔 경우도 2명 있었다. 학력은 7명이 고졸이고 전문대가 1명, 대학 졸업이 3명, 대학원 졸업이 1명이었다. 취업 상태인 경우가 6명이었으며 주로 남편의 직업을 통해 가구 소득이 결정되었으며 적게는 100만원에서부터 800만원으로 중상층에서 저소득층까지 다양하였고 종교는 기독교가 7명, 무교가 5명, 천주교가 1명이었다.

2.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면접은 2007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계속한다는 원칙으로 하되 연구 참여자의 상황을 고려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13명의 연구 참여자와 1:1 개인 면접 녹음 자료, 현장 면담 기록, 연구 일지이다. 면접은 참여관찰을 겸하기 위해서 되도록 연구 참여자의 집에서 하려고 하였으며,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였다. 비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면접은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접에는 녹음기를 사용하였고 중요한 내용은 함께 기록하였다. 이를 다시 전사하여 녹취록을 만들었으며 분량은 A4용지 90장 가량 되었다.

개별적 심층면접에서 얻은 연구 참여자의 녹음자료, 현장 면담 기록, 연구일지의 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모두 녹취하여 자료 분석을 위해 여러 차례 정독하여 주요 어휘, 주제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제한된 기준 없이 범주화를 시작하고, 설정된 범주를 기준으로 범주들 사이의 교차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가 마무리된 범주들을 하나의 체계로 완성시켜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현상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면접자들의 인식 즉 '그들이 그 세계를 이해하는 대로 묘사'하는 정보로부터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자료를 코드화 하여 분류하는 과정에서 자료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삼자간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통해 결과 해석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Miles와 Huberman(2000)은 결론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결론을 검증하는 전략으로 편견 개입 여부의 검토, 패턴의 생존력 검증, 설명력 점검 및 제 3자에 의한 감사를 권고 한다(신경림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에 관심이 있고 관련주제에 관한 연구적 경험을 가진 주변 연구자 2인 이상에게서 표본 추출, 측정, 분석이 편견과 오류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검증 받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결과에 대해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았다. 이러한 자료들을 읽고 생각하고, 해석

하는 과정이 순환, 반복되었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다자녀 가족에게 있어서 자녀의 의미

연구 참여자에게 '자녀'에 관한 막연한 질문을 통해 첫 기억에서부터 최근의 기억까지를 들을 수 있었으며 자녀의 출생부터 양육에 관한 내용, 장점과 단점, 다자녀의 적응과정, 주변의 반응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미의 요소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결과 자녀의 의미는 인간과 신의 독특한 관계를 규정짓는 상징이며 나의 행복을 세상에 과시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나를 비취보는 거울로 규정하였다.

1) 인간과 신의 독특한 관계를 규정짓는 상징

신앙 특히 기독교의 신앙이 깊은 경우 자녀는, 신과의 교류를 구체적으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의사·뜻·선물·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다산은 축복이라는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응답자들은 모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창세기 1장 28절)"은 기독교 말씀에 기초하여, 저출산 문제를 풀기위한 노력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드리는 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중절수술을 고려할 때에도 신앙에 기초하여, 생명을 살인한다는 죄책감과 양심이 출산을 장려하는 기본적 동기가 되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기 아빠가 한 달을 셋째를 반대했어요. 남자들은 경제활동을 할 나이가 있잖아요. 한동안 고민하더니 반대했어요. 제가 신앙이 없었으면 당연히 하게 수술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신앙이 있어서……. (사례 3)

저한테 그냥 소망이고 사랑이죠.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못 이룬 걸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소망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고, 또 사랑의 대상이고 축복이죠. (사례 12)

2) 나의 행복을 세상에 과시할 수 있는 존재

자녀는 나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는 대상으로서 "보물·부의 상징·부러움의 대상·미래"를 암시하며, 세상에 나의 행복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아이들마다 개성과 기질이 다양하고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

는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을 통해 한자녀 부모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며, 아이들 자신도 다자녀 가족인 것을 더 좋아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그런 여러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감과 충만감을 느낀다고 서술하였다. 특히 다자녀는 "완전성·행복과 기쁨의 증폭"을 의미하였다. "꼭 찬 느낌"이라는 완전성과 "하나보다는 둘이 많고 둘보다는 셋이 많고 가족이 많음으로 인해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결속력과 행복감을 표현하였다.

다자녀 어머니들은 한자녀 가족에 대해서는 "너무 똑똑하기만 하고 지혜롭지는 못하다. 인생의 깊이를 모른다. 간편하기는 하지만 풍요롭지는 않다.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자라서 부모님 제사와 같이 자녀 혼자 처리하기에 힘든 일이 많고, 많이 외로울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움을 표출하였다. 다자녀 가족에 대한 주변의 반응에 대해서는, 연세가 많을수록 자신들의 가족을 부러워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한 자녀를 더 양육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경제적 부담의 계산법을 쓰지 않았으며, 다자녀를 키우면서 그것에 적합한 삶의 적응 방법, 즉 건전한 자기 합리화와 순응을 터득한 것으로 보였다.

성별이 골고루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키울 때 마다 틀려서 재미있어요. 그래서 둘째 딸 키울 때는 아들 키울 때 몰랐던 맛을 막 남들한테 자랑해요. (사례 1)

셋 있는 가정은 부자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부자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계획 하에 갖지는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가졌어요. (사례 3)

나의 시간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고요. 개인적인 부분들이구요. 가족 안에서의 부분들은 가족이 한명씩 늘어나니까 꼭 찬 느낌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사례 4)

행복감이 더 많아요. 하나가 더 있으면……. 하나 보다는 둘이 많고, 둘보다는 셋이 많고 가족이 많음으로 해서 사랑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외롭게 자랐거든요. (사례 7)

어 되게 부자네.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돈 가지고 돈이 있어서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니고, 우리 남편이 애들이 많은 것을 너무 행복해 하는데 우리 집은 흥부네 집이구나 하는데 아이가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보다는 한마디로 즐거움인거 같아요. 아이로 인한 즐거움, 행복을 주는 존재, 즐거움, 아이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워요. (사례 11)

3) 나를 비춰보는 거울

전업주부인 경우 “별다른 직업이 없으므로 자녀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나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며, 자녀를 통해 자신의 존재이유와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녀를 통한 엄마의 성찰”이 가능하여 아이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고자 하고, 무엇이든지 더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둘 있고, 셋 있으니까 깊이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인간적 성숙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녀가 많아짐으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해소되고 남편 또한 가정에 충실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통해서 삶의 애착이 증가하게 됨을 보여주었다. 연구 참여자의 이러한 표현을 종합해 볼 때 다자녀의 존재는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도 아이를 통해서 성찰할 수 있어요. 헤라헤라 내리 직선적이잖아. 엄마가 철이 들고 아이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 스스로도 반성을 하게 되더라구. (사례 5)

보물……. 저는 가끔 이야기해요. 저를 지탱해 주는 힘이라고 할까요? 제가 어찌면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제 엄마랑 아빠랑 못 자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 애착으로. 그런 게 너무 심한 거는 문제가 되지만, 지금도 많이 못해주지만, 너네한테는 엄마 아빠가 있다. 나는 없어봤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엄마가 해주고 엄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많은 것을 느껴봐서 가정을 더 위하게 되죠. (사례 7)

아무래도 제가 직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 같아요. 내가 없으면 자녀가 지내기 힘들니까. (사례 8)

4) 걱정과 근심을 동반하는 대상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행복감과 자긍심 이면에는 부정적인 느낌의 토로도 있었다. 자녀를 생각하면 “불안한 미래로 인한 우울감·가진 게 없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걱정으로 보여 졌으며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나타난 감정일수도 있으며 사례 9의 경우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취업주부인 사례 2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로 맞벌이 하는 상황에 어린 자녀들을 키워야 함에 따라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다고 표현하였다.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엄마의 보살핌이 꼭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세 명이나 있음으로 인해 부정적이 특성이 대두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마다의 필요를 따라 적절한 보살핌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나 그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오는 갈등도 있었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셋째를 키워야 하니깐 난감하죠, 나갈 것을 아껴야 되고. 둘째 같은 경우는 방학이여서 그나마 5개월을 데리고 있었어요. (중략) 때론 휴직하고 싶어도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힘들어요. (중략) 울고 보채면 정신없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아직 장점이라고는 없어요. (사례 2)

예쁘고 귀엽고 그런데요 한쪽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애들이 어리지만 막연하게 키우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거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게 교육비가 지금도 많이 드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은 잠도 안와요. 정말 암담해가지고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잘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계획을 하고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들의 능력 경제력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사례 6)

지금은 행복하기 보다는 거의 불행 쪽에 가까운 거 같긴 해요. 제가 가진 게 너무 풍요롭지가 않아요. 거기에 너무 얽매이니까. 애들한테서 생각이 좀 없어요. (중략)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애들만 늘어나니까 불안하고 어느 때는 우울증까지 오고 눈물도 질로 나고 그래요. (사례 9)

걱정!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좋을 때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고 정말 든든한, 아이들한테 힘이 되어주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처음에 애 낳 때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잘해도 걱정, 못해도 못하는 대로 걱정, 요즘에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생각지도 않은데서 사고가 발생할까봐.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그런 면도 있지만 아이들로 인해 행복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런데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매스컴에서 그런 게 나오면 자꾸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이 있을 때…….(생략) (사례 13)

2. 다자녀를 갖게 된 동기

다자녀를 갖게 된 동기는 계획임신에 의한 것 보다는 자연스러운 수용이 많았으며 대를 잇기 위한 의무적인 출산도

여전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자녀 가족에게 있어 계획적이며 자유의지에 따라 임신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산발적이고 주변의 압력에 따라 자녀를 임신하게 되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1) 계획에 의한 다자녀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러운 수용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는 막내 자녀인 셋째 또는 넷째의 경우 피임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적지 않게 당황하였으나 이를 다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수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수용적 자세는 출산 후 가족원의 증가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어졌다.

일부(사례 3, 사례 7)는 임신사실을 안 남편의 오랜 반대에도 불구하고 키워야 하는 소중한 생명으로 생각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자녀 출산에 관해서는 어머니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종교적 양심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자녀를 갖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

구체적인 가족계획보다는 막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자신의 경험과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다자녀를 수용하며, 자신이 다복한 집에서 자랐거나(사례 8, 사례 13), 식구가 적어 외로웠거나,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5명까지 계획적으로 출산하고(사례 4), 병원 의사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출산하는 경우(사례 13)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모두 국가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은 이야기 했지만 그것에 비중을 두고 출산을 고려하지는 않았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양육하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있었다.

다자녀 가족의 경우 자녀의 성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앞으로 하나쯤 더 낳을 수도 있다는 출산에 대한 여유로운 마음자세를 보였다. 또 성별균형을 맞춰서 아이들의 친구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막내를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사례 1, 사례 12, 사례 13)도 가지고 있었다.

그냥 생겨서요. 배란기랑 전혀 상관없이 자연 피임했고 잠자리에서 전혀 될 시기가 아니었어요. 생리 불순으로 오는 현상인가보다 하고 지나가다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테스트해서 확실하게 안심하자 했는데, 아 뽀짝 임신 이었어요. (사례 2)

저보다 아빠랑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못 낳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남자들이 (중략) 엄마 하나 더 낳아죠. 나는 남동생이 꼭 필요한데. (사례 4)

그 당시에는 2번 임신 되었었는데 셋째라는 것을 생각 못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살면서 2명 키우다

보니 셋째 낳아야 겠다 생각이 없었어요. (중략) 한번은 감기약을 먹어서 수술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피임 안하고 자연적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갓났을 때는 낳아야 겠다고 했고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어요. 큰 아이들이랑 티율이 있어서 늦둥이 했는데 지금 친구들 40살에 낳는 친구도 있고 늦둥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례 10)

저는 아이를 특별하게 노력해서 갖은 것은 아니구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큰 아이는 결혼해서 바로 생겨서 허니문 베이비는 아니지만 바로 아이 생겨서 첫째 낳고, 그 다음에 둘째는 자연스럽게 안 생겼어요. 피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직장 자리 잡고 그 때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막내는 뜻하지 않게 생겼어요. (중략) 막내 때는 별 생각도 없었던 거 같아요. 제가 워낙 둘째를 힘들게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아이가 생길까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막내 생기고 나서는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키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많이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계획해서 셋째를 가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생각이 들고 해서 아이를 지을 까도 했는데 그거는 너무 죄짓는 거가 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한 게 너무너무 잘한 거 같아요. (사례 11)

셋 낳고 하나는 입양하자. 모르겠어.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 마음에는 여건이 되면 데려온 아이를 힘들지 않게 한다면 우리 아들도 덜 외롭고 자꾸 마음에 입양도 가능할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녀였을 때 신랑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랑은 지금도 그렇게 하자는 식이에요. 우리 새끼만 하지 말고, 힘들 면은 입양 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못 낳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체력적으로도 도와주는 아줌마나 어머니가 얘기를 키워주지 않으니깐. (사례 12)

병원 갈 때마다 의사선생님을 되게 잘 만났어요. 첫째 둘째를 다 받아주셨던 선생님이었었는데 남편하고 싸우고 이번에 병원가면 나 수술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막상 병원가면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의사선생님한테 이야기 했어요. 올 때마다 나쁜 마음먹는다고.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아이고, 엄마는 애국자시라고. 힘내시라고. 셋째 낳으면 얼마나 예쁜 줄 아냐고” 자꾸 그렇게 갈 때마다 말씀해 주시니까……. (사례 13)

2) 대를 잇기 위한 의무적 출산

이외에도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강요로 성별감별을 실시하여 세 번째 자녀로 아들을 출산한 경우(사례 9)와 딸 둘을 낳고 많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경험한 경우(사례 12)는 아들을 낳기 위해 다자녀를 출산한 사례였다. 이 경우 다자녀로 인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 예외적인 사례들이었다.

저 결혼하면서 계속 아들을 바라셨던 거 같아요. 계속 딸이어서 못할 짓을 했어요. 2번이었는데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중략) 네. 돈이 들고 또 그렇잖아요. 요번에는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했어요. 처음부터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불법이니까. 계속 가보니까 8~9개월 되니까 병원에서 해주시더라고요. (중략) 차라리 안 낳았으면 싶고 왜 낳았나 싶어요. 낳으면 뭐 하냐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없는데 막 그랬거든요. 딸이 더 귀찮게 당신도 아들 키워 봤잖아요. 그렇게 못하는데 뭘 바라시냐고 얘기하고 싶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오빠 가슴에 못 박는 이야기잖아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만 꿈꿨고 있어요. (사례 9)

사실은 내가 아들 낳기 전에 제정신일 수 없었던 거 같아요. 중간에 그 때 우울증이 좀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낳으면 중절수술 안하고 낳을 수 있는데,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같아. 자신감도 없거니와 또 내가 감당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무게를 그래서 내가 애기 아빠한테 셋째가 만약에 딸이면 나는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 무조건 나가자. 왜냐면 외국에는 자유롭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셋이 딸이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지금은 딸 셋 키우는 엄마들 보면 마음이 참 대견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례 12)

경상도 집안이라 아들 아들 하거든요. 유독 그래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중략) 아들 갖고는 좋았죠. 시댁에서 대접이 달랐어요. 첫째 때는 여자 아이라고 이름도 안 지어줬는데……. (사례 10)

3. 다자녀 가족의 인적자본투자 실태

다자녀 가족의 인적자본투자의 실태는 가족구성원이 많음으로 인해 훌륭한 학습의 장으로 인식되는 장점과 제한되고 불공정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단점으로 대비되었으며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따라 부모의 노후를 위한 투자의 대상이 아닌 자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1) 다자녀의 가족구성 자체를 훌륭한 학습의 장으로 인식 대부분의 면접자들은, 한자녀 가족과 비교하여 다자녀 가족은 사회성이 학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은 한자녀 가족의 열악함과 비교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사회성과 남에 대한 배려”가 다자녀 가족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인적자본임이 응답자들에 의해 자주 언급되었다. 집에서도 아이들끼리 놀 수 있어서 혼자 자란 아이와는 차이가 생기게 되고, 자라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자주 표현하였다.

또한 학습의 측면에서도 다자녀의 경우 자연스러운 경쟁과 협동으로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첫 자녀와는 달리 밑으로 갈수록 스스로 알아서 학습하게 되는 자율성까지 발달함을 지적하고 있다. 부모와 놀이를 하기보다 아이들끼리 노는 것을 더욱 좋아하게 되어 부모에게 오히려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면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세 자녀의 장점은 벌써 가정에서 사회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거랄지 나눠먹는 거라든지 남을 배려하는 게 다 되는데, 혼자인 아이들은 몸을 부딪히는 것이랄지 부딪히는 것조차도 용납이 안 되고 그런 면을 보는 거 같아. (사례 1)

한자녀 가정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만 정서적으로 안 좋아요. 고학년은 모르겠는데 저학년의 경우에는 적응속도가 느리고 활동적이지 않아요. 다자녀나 둘이 큰 가정은 아이들이 적극적 이구요. 반에서 반장, 부반장, 회장 등 임원을 6명 뽑는데 한자녀 가정의 아이들은 별로 없어 학습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잘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회성 면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학습 면에서 월등하지도 않아요. (중략) 다자녀 가정은 같이 하려는 상승효과가 있어서 첫째가 공부하면 둘째도 따라서 하려고 하고 아이들이 같이 놀아서 지루하지는 않아요. 혼자 노는 방법도 잘 알고. (사례 2)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고 이렇게 리더십이 있다고 친구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보기에는 부족한데 친구들 사이에는 트러블이 없고 이해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막내 같은 경우도 막내면서 특별히 유치원에서도 골고루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사례 3)

배려가 많아요. 다른 아이들 혼자 큰 아이 친구들을

보니까 혼자 큰 친구들에 비해서 배려가 많아요.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나보다 딸 아이들을 많이 챙겨주는게, 큰 아이가 성격은 활발하지는 않지만 내성적이면서 잘 챙겨요. (사례 4)

네 명이 모이면 다 개성이 틀리니까. 컴퓨터는 하나야. 근데 다 하고 싶어. 혼자 같으면 혼자 다 하지, 둘만 되도. 근데 하고 싶어. 네 명 되니까 가위 바위 보 하고 순서를 정하더라고. TV 도 처음에는 막 싸웠어. 근데 나중에는 자기네들끼리 규율을 만들더라고. (사례 5)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고 싶다고 지수가 먼저 막 시작했는데 피아노 치고 손가락 번호 하면서 지훈이도 누나가 해서 그런지 친구들이 해서 그런지 외우더라고요. 너도 하고 싶니? 했더니 엄마 나도 하면은 될 거 같아 그러더라고요. (사례 6)

내가 하나일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집안에 대소사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혼자 어떻게 해낼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의지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중략) 부딪힘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어요. 큰 아이가 고생을 했는데 처음에 7년 동안 독자로 자라다가 그런데 모든 것을 같이 나눠야 하니까 힘들어 해요. 그런데 계가 지금 그걸 극복하는 게 더 좋은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양보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 (사례 11)

옛날에. 예. 예(첫째)도 조기교육 조금 했었어요. 애(둘째)는 구몬이나 그런거 안해도 스스로 읽는 것도 내가 가르쳐 주는 걸로 가능하고, 막내 같은 경우도 누나가 가르쳐 주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일단은 수다가 되잖아요. (사례 12)

네. 사회성도 좋아지고, 또 큰애가 예전에는 항상 어디 갔다 오면 맞고 오고 무슨 일 있으면 울기부터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동생이 무슨 일이 있으면 언니가 지켜줄게 누나가 해줄게 동생 챙기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그전에는 사촌 언니들한테 받기만 했는데 동생이 생기니까 내가 받은 거 말고 베풀 줄도 아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사례 13)

2) 제한되고 불공정한 인적자본 투자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의 정도를 살펴본 과정에서 투자 액수는 적게는 월 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월 300만원까지

이르고 있었으며,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게는 10%에서 많게는 60%까지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보인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김선미(2004)의 연구에서 사교육은 가계지출 중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60%까지 이르며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작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계재정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사교육비를 유지하고자 다른 비목을 우선적으로 삭감시키려고 하였다. 자녀의 연령대가 낮은 경우, 특히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적었으나 어린이 집을 다니는 순간부터 각종 재능교육과 예체능 활동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사교육으로 학원과 과외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다자녀 가족의 행복감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역시 교육적 부담이었으며, 이는 곧 부모의 능력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녀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더욱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곧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자녀수는 인적자본 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를 위한 총지출비는 증가하고, 자녀 한 명당 지출되는 비용은 감소하는데(양정선, 김순미, 2005), 특별히 저소득층 다자녀 가족의 경우 같은 계층의 한 자녀 가족보다도 더 낮은 인적자본투자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진폭제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자금 지원도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정책을 갖고 있어서 중하층에 속하는 가족은 사각지대에 속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인적자본 투자 중 사교육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 사이에 공정한 투자가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아이들 모두가 원하는 사교육을 시킬 수 없었으며, 따라서 자녀들 사이에 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교육의 부담감은 다자녀 가족의 단점으로 인식하고 한 자녀 가족이 마음껏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부러워 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여럿이다 보니 그 중에 조금 우수한 자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음도 인정하면서, 사교육 투자는 첫째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첫 자녀 중심의 교육 투자관이 지배적이었다. 그 외에 욕심이 많은 자녀와 가능성이 있고 재능을 보이는 자녀에게 집중하게 된다고 하였다. 과거 가부장적 사상이 지배적일 때에는 남아 선호 사상에 따라 남자아이에게만 절대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 졌으나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성별에 따라 다른 투자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한자녀 가족에 비해서 낮은 기대수준을 수용하고 합리화 시키려는 모습이 지배적이었다. 막내에게는 기대도 적어서 교육적 투자가 다소 덜하지만 무엇을 해도 사랑스러운 존재 그 자체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이는 둘째와 셋째 자녀

의 터울이 벌어지는 늦둥이의 경우에 더 각별하였다. 큰 아이 때는 우수한 아이로 키워보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많이 보였지만 막내 때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못 깨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조기교육의 필요성은 막내로 갈수록 더 적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기대수준이 낮아지는 측면과 함께 아이들마다의 요구가 다양함으로 모두에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부모의 어려움도 함께 내포하고 있었다.

둘째 때는 좀 더 여유가 있고 셋째는 아주 느긋해가지고 한글을 모르고 학교를 가는 정도는 아닌데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런 식으로 생각 하게 돼. (사례 1)

둘째 딸은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못 느꼈어요. 1, 2학년 때는 적응하니까 욕심내고 성과가 나고, 우리 아들은 욕심이 없고 친구들과하고 놀고 인간적인 것을 좋아해서 1, 2학년 때는 똑같이 학원 다녔는데 지금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두고 제가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제가 돈이 많다면 다 해보고 제 갈길 찾았으면 좋겠는데, 시켜서 욕심을 내고 하려는 아이한테 투자해야겠다 욕심이 없다고 개가 안 될 것은 아니잖아요. 강요할 것은 아니잖아요. 남자 아이들이 좀 어리다고, 늦고 욕심이 들하고, 성격은 좋아. 하고자 할 때 밀어줘야겠다. 애들마다 다 있다 같아요. (중략) 셋이면 애가 부족하면 애가 잘하고 그런 게 있거든. 짐착이 될 수 있는데. 셋이면 한 놈은 잘될 수 있고 욕심도 들 나요. (사례 7)

근데 요즘에는 저는 모든 아이들이 다 일등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엄마는 신앙 안에서 예의바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이 아빠는 조금 달라요. 신앙이 밀바탕 되어야 하지만 공부는 잘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외식을 하다가도 쪼아요. (중략) 막내한테 바라는 게 있지만 안쓰러운 거죠.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때는 학습지며 피아노며 다 보냈는데 막내는 뽀렘도 모르고……. (사례 10)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막내한테는 참 미안해요. 큰 아이 때는 그 아이 하나한테만 매달렸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둘째만 되도 나뉘 줘야 하니까 책 읽어주는 것도 그렇고 둘째만 있어도 나눠서 해야 하잖아요. 책 읽어 주는 게 그렇고 그 다음에 여전히 바깥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달리면 아이한테는 훨씬 더 소홀한 거 같아요.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인데 한글을 아직 완전히 제대로 못 띄었어요. 읽는 것도 띄엄띄엄 읽게 되고. (생략) (사례 11)

큰애한테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인제 둘째 셋째는 물려서 쓰는 게 많고 옷도 그렇고 책이나 장난감도 그렇고 그리고 인제 엄마들은 항상 본전 생각을 하거든요. 큰애한테 해주면 세 명 다 쓰니까 본전 뽑는 거다 생각하고, 둘째 셋째한테 거의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그 비중이 큰애만큼은 아닌 거 같아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이나 이런 거나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큰 아이한테 많이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큰 애가 잘되 있으면 동생들이 보고 그냥 이렇게 모델이 돼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사례 13)

3) 부모의 노후와는 무관한 인적자본 투자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거나 가계의 대를 잇거나, 경제적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인적자본으로서 인식되지 않았다. 부모 자신들의 미래와 자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례에서 자녀에 대한 노후부양의 기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자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결 수 있는 것 자체가 많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연금, 보험이 전부였으며, 저축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있다하더라도 자녀들의 급한 지출을 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노후는 아이들한테 의존할 생각은 없고요. 큰 재테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벌려나가는 추세고 아이들에게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요즘 많이들 펀드다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아직은 막연해서 그냥 양육하고 여유 있게 부족한 것도 없지만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노후에 대한 생각은 보험을 들어놓고 아이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것 보다는 절대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례 4)

네. 종신보험 연금보험 이런 거. 이게 다 인거 같아요. 사실 지금 저축 좀 하고 그래도 그거는 애들한테 쓸 자금을 모으는 거지 노후자금은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급하게 필요할 걸로 쓸걸로 저축하는 거지 노후자금은 아닌 거 같아요. (사례 6)

실질적으로 안 바라고 있어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마음 상태로는 받고 싶지 않죠. 우리도 살아보면

알지만 우리 살기도 바쁘잖아요. 사랑으로 사는 거겠지 만은 힘들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엄마 아빠 나이가 들면 직장생활 못하거든 용돈 쥐야되 말은 해요. 너무 편하게 있으면……. 아직은 어리지만 대충 툴은 알거든요. 말은 하는 편이에요. (사례 7)

가끔 그런 이야기 하고 우리 둘이 재미있게 살자 그러거든요. 금전적인 것은 생각도 못하고 애들 키워 놓고 뒷바라지 하고 살자, 아들이 있어도 뭐 같이 사는 것은 힘들고……. (사례 8)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제가 겪고 하니까 나이 들면 바뀌 질것 아니에요. 서로 안 모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싸리 기대하지 말자고. 그거는 남편하고 통하더라고요. (사례 9)

말로는 아이들보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어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그거는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없고 이때 함께 사는 게 즐겁고 각자 자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저희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노후에는 저희 두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사례 11)

부양 기대 안 해요. 건강하게 살고, 마음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도 일정하게 원한다면 대학교 까지는 보내야 될 것 같아. 거기까지 하고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해줄꺼예요. 왜냐하면 애기 아빠도 나도 그랬거든. 그래도 잘 살거든요. 부모님이 애기 아빠랑 나랑 딱 거기선 까지만 했는데도 잘 살고 못산다는 것보다도 나는 그냥 애들한테도 자기가 설 수 있는 자원만 갖춰주면 그 다음부터 우리 거잖아. (사례 12)

4. 다자녀 가족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미래

다자녀 가족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미래는 평범한 미래 지향성으로 압축되었으며 자녀에게 무형의 자산밖에 줄 수 없으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며 큰 희망 속에서 긍정적으로 자기 수용과 합리화를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부모는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자녀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며 의지하려고 하는 시대상황과는 구별되는 모습이다. 과거에는 다자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1) 평범한 미래 지향성

요즈음의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성적과 대학진학에 모든 열성과 희망을 두는 시대적인 풍조와는 달리 학업적 성취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한자녀가족의 경우 부모의 관심이 아이에게 집중되는 반면 다자녀 가족의 경우 관심이 분산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부모는 자녀의 재능을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자녀마다 다른 성격과 개성을 살려주며 부모는 힘닿는 데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를 리드하는 엘리트 계층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중간정도”,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정도”라는 평범한 시민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퇴학이나 불미스러운 사건 없이 그때그때 학교를 졸업하는 것” 정도의 낮은 목표를 갖기도 하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본인이 행복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착한 사람이 되는” 인간중심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다.

정말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요. 너무 특별하고 뛰어난 아이보다는 평범한 아이로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사례 2)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늘 감사한 게 신앙, 기본적인 게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키우는 것이 많이 힘이 되죠. 양육이, 건강하게 많이 친구들과하고 놀면서 요즘 왕따가 많잖아요. 크게 특별하게 키우고 싶지도 않고 튀게 키우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정말 원한다면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학원으로만 돌리는 게. (사례 4)

공부도 중요하지만 애들 인간성도 중요하니까 애들 착하게 잘 문제없이 진학이라는 게 초등, 중, 고 순서가 있잖아. 저기 해가지고 퇴학당하고 그런거 없이 그때 그때 마다 졸업하고 사회 일원, 가정 일원, 한 나라의 일원으로 무난하게 잘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사례 5)

그냥 각자 직업이면 좋은 직업 가져서 힘든 일 안하고 여유 있게 인생을 마음을 여유 있게 즐기면서, 돈 많다고 여유있는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누리면서 여유를 갖고 여가 그런 걸로 여러 가지 하면서 사는. 그런 거……. (사례 6)

어떤 부모나 다 똑같지만 바르게 자라고 뼈뼋하게 안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남들한테 기죽지 않게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사례 9)

남들이 봤을 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말고 저 사람은 인간적이고 참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거.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이러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최소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정말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남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늘 듣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사례 13)

2)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으로는 충분한 사랑, 사회성, 인내심, 경쟁력, 독립심 등 다자녀 가족 구성에서 비롯되는 무형의 인적 자산을 들었다. 자녀가 모두 성장한 후에도 결혼 준비 자금, 주택 마련 자금 등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에 적극적인 오늘날의 시류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 면접자의 대다수가 물려줄 자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으며, 이를 건강한 정신적 자산으로 대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자는 아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행복한 미래, 성실함,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목록에 추가하였다.

솔직히 나는 물질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좋은 인간성, 사람이 되는 거지. (사례 5)

물려줄 것도 없는데…….(웃음) 물려줄게 있어야지, 물려준다면 여유 있는 경제력은 못 물려줄 거 같고요. 제가 재산에서 안 되니까. 음……. 예쁜 마음, 사랑하면서 같이 살았다는 거 알아듣기 쉽도록. (사례 6)

재산은 아니구요. 뭐를 물려줘야 하나. 그냥 정직한 거. 무형인거. 그런 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저도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게 없으니까. 배우려는 마음 그런거 그런게. 제가 유형적인 거 물려 줄건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우리 시어머니 열심히 사셨거든요. 자녀들이 다 잘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는 돈을 해주잖아요. 자녀들은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벌여 놓은 것을 다 썼거든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저는 아무래도 남한테 피해 안주고 내 책임 다하는 거. 어떤 위치에 있던 내 책임 다하는 거 같아요. (사례 7)

특별히 엄마가 살면서 겪었던 어려운 일에 대처를 어떻게 하고 삶에 방식이라던 지 아무래도 엄마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일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사례 8)

우리는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능력이나 저희가 자녀한테 큰 재산

남겨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 같고요. (사례 11)

엄마 아빠가 살아왔던 사고방식, 독립심 같은 거. 내일 당장 부모가 없어진다고 해도 잡초처럼 곳곳이 살아갈 수 있는. 저도 너무 없이 살아와서. 저도 형제가 많아서 그때는 그 상황이 싫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아서 학교 다니고 했는데, 그래도 자기 목표한 바가 있으니까 깨끗하게 살고.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을 많은 식구들하고 부딪히며 배운 것은 그거 밖에 없는 거 같아요. (사례 13)

IV. 결 론

본 연구는 다자녀 가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다자녀 가족에서 자녀의 의미와 출산의 동기 및 이들의 인적자본 투자 양상과 자녀에 대한 기대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13명의 다자녀 어머니들을 심층면접 하였다. 다자녀 가족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해 비구조화된 질문의 형식으로 접근하였으며 투자적인 관점에서 자녀에 관해 이해하기 위해서 자녀의 의미나 출산의 동기와 자녀에 대한 기대를 함께 서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질적 면접 결과 다자녀 가족의 선택과 적용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주체적인 적응전략을 펼쳐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자녀 가족들이 유사한 환경에서 어떻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적용의 양상과 삶의 의미를 주는 원천에 대한 해석적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었다. 다자녀를 갖게 된 동기에서부터 자기수용과 건전한 합리화를 추구하고 생애주기마다 적절한 순응과정을 반복하면서 차별화되고 행복한 자신들 특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녀 가족에게 있어서 자녀의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본질적인 특징으로 묶여지는 것들은 인간과 신의 독특한 관계를 규정짓는 상징, 나의 행복을 세상에 과시할 수 있는 존재, 나를 비취보는 거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시각이 사회적인 부러움이라고 해석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표출하는 행복감은 다자녀라는 가족구성 자체에서 비롯되는 원천적인 행복이라기보다는 스스로 행복하게 느끼도록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적극적인 행복 찾기와 행복 만들기의 긍정적인 정서였다. 한편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행복감과 자긍심 이면에는 걱정과 근심의 모습도 있었는데, 그것은 자의든 타의든 남

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됨에 따라 더 많은 관심과 배려 및 책임이 수반된다는 사실이었고, 자녀수 증가에 따른 가사 노동의 양과 기간도 증가되었다.

둘째, 다자녀를 갖게 된 대다수 면접자의 전형적인 동기는, 애초부터 계획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수용과 적응”에 있었다. 이는 기혼여성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임신중절 경험이 있다는 통계에서 나타나는 오늘날의 양상과는 차별화된 부분으로 건강한 자기 합리화를 통해 숙명으로 인지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는 여성의 의사가 더욱 중요하다는 강한 의지와 낙천적인 인성의 특징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대를 잇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출산한 면접자의 사례에서는 대다수의 면접자에게서 보여지는 특유의 행복감을 찾기 어려웠다.

셋째, 다자녀 가족의 인적자본투자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성 중의 하나는 다자녀라는 가족구성 자체를 훌륭한 학습의 장으로 인식한다는 사실과, 부모로서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시인하지만 이러한 양육환경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과 자녀 그리고 사회를 향해 직간접적으로 높은 자긍심을 표출하였다. 또 다른 특성으로는 인적자본 투자에서 나타나는 제한성과 불공평성의 문제였는데, 이는 한정된 수입과 부모의 시간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하지만 면접자들은 모든 아이에게 집중적인 보살핌과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어머니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건강하게 수용하였으며, 그 결과 자녀를 향한 낮은 기대수준을 수용하고 합리화시키려는 모습이 지배적이었다. 자녀들 또한 부모가 자신만을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은 채로 스스로의 일상을 일구어나가며, 적절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나타나는 성장과 학습과정에서의 “상승효과”는 다자녀 가족만이 소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역이었다. 많은 수의 자녀들 중 누군가는 부모의 노후를 부양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내지는 자녀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에 자신들의 가계가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통적인 의미의 인적자본 투자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넷째, 다자녀 가족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미래는 “평범함”이었고,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으로는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형의 인적자산을 들었다. 이는 자원분배와 할당이 다수의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인적자본 투자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자녀를 향한 엘리트 지상주의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다자녀의 가족구성 특성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인적자본에 투자할 수는 없으나 바로 그 투자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던 다자녀라는 가족구성 자체에서 사회성, 협동, 독립성 등의 인적자본이 창출되며

이런 것들이 자신들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한 자녀 가족과는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가족이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오늘날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한 후에도 정서적 융합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물질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 세대를 반성하게 하는 사고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다자녀 가족에게서 나타나는 자녀의 의미와 출산의 동기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05년에 ‘전국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중절 수술 가운데 기혼여성이 20만 3230건, 미혼여성이 14만 7360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기혼여성의 시술 이유는 ‘자녀를 원치 않아’, ‘자녀간 터울 조절을 위해’ 등 가족계획 때문이라는 응답이 75%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17.6%로 그 뒤를 이었다. 모자보건법상으로는 유전학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가임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등에 의해서만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조사에 응한 산부인과의 80%가 시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해중, 2005).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 생명은 신의 뜻으로 이해하고 축복이자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이를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통해 강하게 설교하고 있다. 결국 응답자들이 말하는 신의 뜻, 섭리, 축복, 선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교리에 입각한 신앙적 학습의 결과이다. 하지만 과거 산아제한이 사회적 정책으로 대두되면서 사회 안에서 공존하고 번성해가는 종교들이 낙태가 자신들의 교리에 어긋나고, 신의 뜻을 저버리는 “죄”의 행위임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다. 최근에 와서야 세계최저 출산율이라는 통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낙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새 생명이 신의 뜻, 섭리, 축복, 선물”이라고 한결 같이 받아들이는 종교적 학습이 가능하다면 새 생명을 거부하는 낙태야 말로 신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인정하는 것도 종교적 학습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종교 다양한 교리가 공존하지만 궁극적인 선을 추구하는 종교의 목적에서 보았을 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는 기본적 철학에는 종교에 따른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종교는 오늘날의 저출산을 저지하는 다양한 방법론 중 계몽과 운동의 측면에서 가장 다수의 지지자를 얻을 수 있는 선두적 지위에 서있다. 이러한 종교적 힘은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다자녀 가족의 인적자본투자 양상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교육열에 대한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 다자녀이기 때문에 한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도 없고 한자녀 가족처럼

집중적인 물질적인 지원도 불가능하지만, 다자녀 어머니들은 이를 부모로서의 자책감으로 몰아가지 않고 건전한 자녀의 양육방침으로 표면화시켰다. 즉 자녀 중에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잘하는 아이도 있으며 아이들 모두의 개성이 다르고 색깔이 다양함을 인정하였다. 다자녀의 어머니가 보이는 이러한 “다양성의 인정”은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과도한 사교육의 열성을 보이는 어머니의 시각에서는 방관에 가까운 자기합리화요 게으른 뻔뻔스러움 내지 무능력의 표출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의 인정과 그에 합당한 인적자본 투자의 선택은 가장 바람직한 양육방침이다. 조기교육과 사교육만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은 아니며 공부만 잘하는 아이보다는 주체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사람됨이 우선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다자녀 어머니들은 사교육의 열풍에 모두 다 휩싸여 교육의 기준과 잣대를 잃어가는 오늘날, 태풍의 움직임을 멀리서 바라보는 관망적 자세의 여유로움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다자녀 가족의 행복감과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는 2007년도 1월 KBS 2TV에서 방영된 “아홉이 딱 좋아”와 같이 많은 대중매체를 통해 오늘날의 이야기 소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반복되는 소재로 등장하고 담론적 화두가 될 때 다자녀의 이상적인 측면은 자연스러운 모델링을 동반할 것이다. 문화를 통한 정서적 동화는 정책적 시효의 경제 가치를 환산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정신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측면에서 다자녀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까다로운 절차와 소득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 했다. 지원정책 보다는 다자녀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지는 정신적 측면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예비학교를 운영하고 낙태반대운동을 하고 ‘경건한 믿음의 자녀 낳기 운동’ 등을 펼쳐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NGO 인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가 출범되고 정부에서 ‘새로마지플랜 2010’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펼쳐나가는 것 등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사료된다.

넷째, 빈곤의 악순환과 인적자본투자에 관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건전한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족의 경우 빠른 결혼연령과 저학력, 저소득 집단이 많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 대를 이어 빈곤을 물려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현재처럼 사회적 지원정책이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고학력 여성이 취업과 결혼을 병행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양육 현실상 어쩔 수 없이 한 자녀 밖에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기 때문이다. 고

학력 여성의 결혼과 출산 연령을 앞당기고 이들도 다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전반의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고학력 고소득 집단이 앞서서 다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국민적 운동 역시 필수라 하겠다.

다섯째, 의료기술의 발달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령 출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960년대에는 의료기술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합계출산율이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피임기술이 부족하여 40대 고령 출산도 많이 이루어 졌다. 최근에는 의료기술과 피임기술의 발달로 계획임신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30대만 지나면 노령출산으로 기형아의 출산율 등 부정적 요인이 커짐으로 출산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 또한 자녀간의 티울에 따라 양육의 강도가 변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인식도 예외적인 경우로 생각하기보다 출산을 장려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겠다.

본 연구는 내부자의 관점에서 다자녀 가족에 접근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그들의 삶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스스로 제한된 인적자본 투자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외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자녀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질적 연구는 그 대표적인 연구 논리를 현상학적인 인식론에 두고, 사물은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되고, 서로 다른 집단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의 의미를 당사자들의 주관적 세계 속에서 해석한다(조용환, 1999)는 견지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 시대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과도한 교육열 문제를 되짚어보며, 삶이 좀 더 긍정적이고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새로운 측면에서 다자녀가족의 삶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 접 수 일 : 2007년 09월 10일

□ 심 사 일 : 2007년 10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11월 30일

[참 고 문 헌]

- 강복화(2003).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미(2004). 전업주부의 ‘자식 키우기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537-553.
- 김수연(2003).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 복지정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2006).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한자녀 및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인식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해중(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 송호경(2004). 외동이와 다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 저(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양정선·김순미(2004).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연구 - 사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221-232.
- 이종규(2006). 질적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정혜선(2006).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른 자녀수와 출산의지 및 출산장려 정책 요구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환(1999). 질적연구. 교육과학사.
- 최숙희(2006).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 557호.
- 한유미·곽혜경(2004).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을 저하와 여성 사회 참여.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29-40.
- Becker, G. S.(1993). Human capita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rd ed.*
- Mincer, J. & Polachek, S.(1974). Family investment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576-588.*
- Schultz, T. W.(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1), 1-17.*